

개요

• 등록일자 : 2020-03-16   • 업데이트 : 2023-10-13   • 조회 : 9063   • 정보신청 : 96

개요

악성종양은 빠르게 자라고, 주변 조직에 침투하며, 다른 장기로 전이해 생명에 영향을 주는 종양으로 보통 암이라고 합니다. 양성종양은 느리게 자라거나 자라지 않고, 전이를 하지 않아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종양입니다. 간에 생기는 양성종양으로는 간혈관종, 간선종, 간낭종, 국소결절증식증, 담관낭선종 등이 있습니다. 간암이나 간내 담관암 등의 악성종양과 달리 복부 영상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증상이나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한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의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을 구별하기 위해 복부 초음파검사,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 복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을 시행하며, 이러한 영상 검사에서 구별이 어려우면 간조직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개요-종류

간혈관종, 간선종, 간낭종, 국소결절증식증, 담관낭선종 외에 간에 생길 수 있는 양성종양으로는 간세포에서 유래하는 결절재생증식증(nodular regenerative hyperplasia)과 혈관 내피세포에서 유래하는 혈관내피종(hemangioendothelioma), 림프종(lymphangioma) 등이 있고, 간엽세포에서 유래하는 지방종(lipoma), 평활근종(leiomyoma)도 있습니다. 증상이나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고는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소지방침착(focal fatty infiltration)이나 염증성 위종양(inflammatory pseudotumor) 등도 간에 생길 수 있는 종양 모양 병변으로 감별이 필요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양성종양도 악성종양이 될 수 있나요?

A.

대부분의 양성종양은 악성화되지 않아서 영상 검사만 주기적으로 시행하지만, 일부 양성종양은 악성화될 수 있어서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악성화될 수 있는 종양은 선종입니다.

Q. 모든 양성종양은 수술 등 별도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양성종양도 선종처럼 악성화하거나 내부출혈 가능성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합니다. 암으로 변하지 않는 양성종양도 크기가 커서 복통 등의 증상을 일으키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크기의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담당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 관련 건강정보

[간의 양성종양\(간낭종\)](#)   [간의 양성종양\(간선종\)](#)   [간의 양성종양\(간혈관종\)](#)   [간의 양성종양\(국소결절증식증\)](#)   [간의 양성종양\(담관낭선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목록

